



호주 뉴캐슬항의 체선현상 지난 6월말에 비해 급감

10월1일 현재 체선선박 39척으로 절반가량 줄어

호주 뉴캐슬(NC)항의 체선현상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1일 시점으로 동 항만에 체선된 선박은 39척으로 지난 6월말의 피크시의 체선선박 75척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뉴캐슬항은 세계 최대의 석탄 선적항만으로 여름철 태풍 피해의 영향으로 체선이 확대되어 태평양 역내의 파나마스, 케이프사이즈 벌크선의 선복 부족 현상을 야기시킨 요인이 되어 왔다.

호주 항만의 소식통에 따르면, 10월1일 현재 뉴캐슬항의 체선은 △파나마스형 벌크선 22척을 비롯하여 △케이프사이즈 16척 △핸디막스 1척 등으로 2주전인 9월24일에 비해 핸디막스의 체선이 7척 감소했으며, 6월말에 비해 케이프사이즈, 파나마스 등 합계 36척이 감소했다.

호주 전체 항만의 체선도 점차 해소되고 있다.

10월1일 현재 전체 항만의 체선은 모두 113척으로 지난 3월말의 220척에 비해 100척 이상 감소했다.

뉴캐슬항은 연간 약 9,000만톤의 발전용 석탄(일반탄)을 출하하는 세계 최대의 석탄수출항으로서 일본은 일반탄 수입의 약 60%를 이 항만으로 부터 수입하고 있다.

이 항만은 지난 6월의 태풍 피해의 영향으로 석탄 출하가 일시정지되어 체선의 확대와 함께 호주-일본간을 중심으로 석탄선의 배선이 늦어지는 등 선박확보에 어려움을 야기시켰다.

그러나, 뉴캐슬항은 현재도 일부 선박의 입항을 제한하는 등 체선 완화의 대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는 향후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다시 일반탄 수송을 위한 배선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올 1-7월 아시아역내 컨테이너물동량 8% 증가

아시아역내 정기항로의 컨테이너물동량이 약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역내 주요선사가 정리한 2007년 1~7월의 컨테이너 화물량은 전년동기대비 8% 증가한 634만TEU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건화물은 7% 증가한 602만TEU, 냉동화물은 28% 증가한 32만TEU를 기록했다.

일본 관계항로에서는, 수출은 3% 증가한 117만3,000TEU, 수입 역시 3% 증가한 152만TEU에 달했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출이 두자리수 증가한 국가를 보면, 남중국이 23% 증가한 12만1,000TEU, 베트남이 29% 증가한 4만3,000TEU, 인도네시아가 37% 증가한 6만6,000TEU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인도네시아 전용은 작년 상반기 동안에 월평균 6,000-7,000TEU 수준에 그쳤으나, 올들어 월평균 1만 TEU에 달하는 등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일본항로 이외로 수출이 성장한 지역은 남중국으로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한 63만 TEU를 기록했으며, 기타 주요국이 11% 증가한 123만TEU, 베트남이 29% 증가한 19만 TEU를 기록했으며, 태국, 싱가포르도 안정된 성장을 나타냈지만, 홍콩과 말레이시아 등은 감소세를 기록했다.